

1994년 <서울의 달>에 재현된 서울*

문선영**

<차례>

1. 왜 1994년 서울인가?
2. 가깝고도 먼 도시, 서울
3. 욕망의 도시, 좌절의 도시
4. 1994년 서울 재현, 그 이후

<국문초록>

<서울의 달>은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번쩍이는 거리 광고판에 가려 볼 수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장소와 그 장소를 공유하던 사람들의 어두운 면에 주목한다. 이 드라마에서 서울은 변두리 소외 계층이자 빈곤층에게 패배 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인색한 도시이다. 기존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밝고, 건장한 이미지로 공유되었던 서울이라는 장소가 어둡고, 그늘진 이미지로 재현된 것은 <서울의 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다수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이야기로 서울의 화려한 도시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을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의 달>은 독특한 지점에 서있다.

<서울의 달>은 충청도에서 서울로 상경한 춘섭, 홍식 두 인물이 달동네에 거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달동네 빈민층 사람들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이다. <서울의 달> 홍식, 춘섭이 경험하는 서울은 TV를 통해 꿈꿨던 희망적 정서를 공유하기 쉽지 않은 장소이다. 그들은 서울 안으로 편입되기를 욕망하지만 서울은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다. <서울의 달>에서 달동네와 산 아래 도시와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 경계를 넘기란 어렵다. 시골에서 상경한 홍식, 춘섭이 아니더라도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울은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다. <서울의 달>의 서울은 화려한 도시 내부에 있어 물리적 접근성은 높지만, 심리적으로 진입하기 불가능한 빈민층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서울의 달>의 주요 인물 홍식, 춘섭, 영숙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

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만족스러운 삶의 조건을 누린다는 것은 당시 서울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는 결코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욕망이다. <서울의 달>의 세 인물은 '낙오자', '빈민'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발버둥치지만 서울은 그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좌절시킨다. 1994년 <서울의 달>의 서울은 '빈민'으로 규정된 이들에게 화려한 도시 중심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내주지 않는다. 도시 중심에 소속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면 비극에 이르는 것이다.

빈민층의 생활을 중심으로 서울을 사실적이고도 우울하게 재현하고 있는 시기는 1994년 <서울의 달> 이후 1990년대 중, 후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서울의 달>은 1990년대 불안정한 분위기를 서울 뒤편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이전 시기 서울 재현 드라마의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서울의 달>은 이후 1990년대 몇몇 작품들이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며 그늘진 서울의 뒤편, 빈민층 이야기를 재현하는데,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방송극, 텔레비전 드라마, 장소, 도시, 서울, 달동네, 빈민층, <서울의 달>

1. 왜 1994년 서울인가?

장소는 인간의 행위나 의식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얽혀져 관계를 맺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한다.¹⁾ 장소는 인간 행위의 바탕이 되며,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덧입으며 탄생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한 국가의 수도이자, 대표성을 띠는 도시로 대중의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는 장소이다. 서울은 해방 후 근대화 정책과 서구 상업 문화의 영향으로 정치, 사회, 경제, 인구 등 모든 것의 중심지로 재탄생 되었다.²⁾

- 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9면.
- 2)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서울은 분단국가 남한의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서울특별시'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법인격의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도와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제1단위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인구수도 약 15만 명이 늘어났고, 하위 행정단위 인구도 승인 면을 통합하여 성북구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8개구에서 9개구로 바뀌었다.(장규식, 『거대도시, '서울공화국'의 명암』, 『역사비평』 제65호, 역사비평사, 2003, 79면)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6869)

** 상명대학교 강사

5·16 군사정권의 조국 근대화 추진으로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하게 재편되어, 서구적 근대성으로 교체된 새로운 공동체의 장소로 변해갔다. 서울이 모던도시의 이미지를 부여받으며 인구 85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도심 상업업무지역과 도시 재개발, 기능적 건축의 대량공급, 계획적 도시 공간 구축 등으로 1980년대 서울은 거대도시로 탄생하였다. 이후 서울은 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화 과정을 통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세계도시’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였다.³⁾

대중이 지리적 제약 조건을 넘어서 서울을 공동의 장소로 경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한 가지는 대중 미디어에 있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은 거주지를 넘나들며 서울을 일반화된 도시 이미지로 반복 생산했다. 특히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은 도시 ‘서울’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곳으로,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부터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방송극에서도 서울은 다양하게 그려졌다.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주된 배경은 도시였고, 물론 도시는 대부분 서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지붕 밑>(1961), <서울의 뒷골목>(1962), <청색 아파트>(1962), <마포 사는 황부자>(1962) 등 서울을 이야기의 중심 배경으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대세였다. 홈드라마의 경우 서울 중, 상류층 가정을 무대로 하는 일일 연속극으로 방송되었다.⁴⁾ 이는 1970년대 텔레비전 홈드라마로 이어지며 <서울의 하늘밑>(1975), <골목 안 사람들>(1975) 등과 같이 서울 중류층의 일상적 이야기를 다루며, 서울을 밝고 건강하게 재현하고 있다.⁵⁾

3) 이경자·홍인옥·최병두, 『서울의 신도시화 과정과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03, 444~448면 참조.

4) 문선영, 『1960년대 초 방송극에 나타난 서울 풍경의 한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1집, 2013, 8, 98면.

5) 고선희, 『한국 텔레비전 초기 가족 드라마 연구』, 성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98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서울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우선 이전 시기 중, 상류층 중심의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보다 화려한 도시 서울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개발, 강남권 재개발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강>(1981), <갈매기>(1986) 등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강의 이미지를 통해 서울의 발전적 모습을 담으려고 한 예라 할 수 있다.⁶⁾ 한편 1980년대 이후 텔레비전 연속극의 서울 표상은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중심지 변화가나 중, 상류층의 문화를 재현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그 극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빈민 집단 지역을 주요무대로 삼기 시작했다. 재개발된 서울의 뒷편, 뒷골목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시작을 알렸던 드라마는 <달동네>이다. 1980년 6월에 방송된 연속극 <달동네>를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서울은 중, 상류층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⁷⁾ ‘서민드라마’ <달동네>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이하의 하층민이 모여 사는 ‘달동네’를 주요 배경으로 삼으며, 기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중심이 되었던 서울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었다.⁸⁾ <달동네>는 서울 빈민층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공동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통한 희망을 주요 메시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텔레비전 드라마 속 서울 재현과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 의지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달동네’ 사람들의 ‘서울’은 여전히 따듯하고 희망적인 장소이다. 서울의 ‘달동네’를 희망적인 공간이 아닌, 빈민층의 패배와 절망의 공간

135~136면 참조.

6) 정영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59면.

7) 고선희,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표상』, 『대중서사연구』 제25호, 2011.

8)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서민드라마’라는 용어는 <달동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서민’이라 할 때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현재 방송가에서 ‘서민드라마’라 할 때의 ‘서민’은 보다 저소득층이 주역인 드라마, 즉 중산층 이하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고선희, 위의 논문, 11면)

으로 다룬 것은 1994년 <서울의 달>이다.

1994년은 ‘서울 정도 600주년의 해’로 서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로 분주했던 해였다.⁹⁾ 한편 1994년의 분위기는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커져가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 국제적인 정세 역시 크게 요동하고 있었다. 여기에 웨리호 침몰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불안이 90년대를 잠식해갈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¹⁰⁾ 90년대 중반에 몰려오는 이러한 분위기는 현실에 대한 전망이 한 순간에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드라마 <서울의 달>은 1994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했다.

<서울의 달>은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번쩍이는 거리 광고판에 가려 볼 수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장소와 그 장소를 공유하던 사람들의 어두운 면에 주목한다.¹¹⁾ 이 드라마에서 서울은 변두리 소외 계층이자 빈곤층에게 패배 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인색한 도시이다. 기존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공유되었던 서울이라는 장소가 어둡고, 그늘진 이미지로 재현된 것은 <서울의 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다수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이야기로 서울의 화려한 도시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을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의 달>은 독특한 지점에 서있다.¹²⁾ 그러나 단지 이 드라마를 이질적 사례로만 볼 수 없는 이유

9) 서울을 기념하는 행사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기획되었다. 첫째 서울에서 한국의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둘째 서울이 세계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었다. 각종 기념 연극제 개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600주년’ 기념하여 ‘서울시립가무단’에 의해 제작된 뮤지컬로 당시 서울 재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최승연,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 재현된 서울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2008, 312~313면 참조)

10) 웨리호 침몰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은 성수대교 붕괴(1994.10), 삼풍백화점 붕괴(1995.6) 등 재난적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11) 김운경 극본, 정인 연출, 총81회, MBC, 1994.1.8~1994.10.16.

12) 1990년대 화려한 도시로 서울의 이미지는 1990년대 트렌디 드라마의 유행과 더불어 강남, 압구정동, 신촌 등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 중심 문화라든가, 상류층 중심의 도

는 <서울의 달>이 1990년대 서울의 이면을 조명해주기 때문이다. <서울의 달>은 1990년대 ‘서울’의 화려한 경관에 가려져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장소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는 199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현하는 방식 안에서 당시 대중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서울’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1994년 <서울의 달>의 서울의 재현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2. 가깝고도 먼 도시, 서울

1994년 정도 600년을 맞은 서울은 상하이, 디카, 상파울로, 북경, 멕시코 시티 등과 같이 세계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에 속하게 된다. 이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이었다.¹³⁾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상단의 지점이었고, 권력과 위세를 부여받은 공간이었다. 서울에 간다는 것, 서울에 산다는 것, 서울 말씨를 쓴다는 자체가 지방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또한 서울은 멀리 있어서,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장소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경부고속도로가 전부 개통되어 ‘전국의 일일 생활권화’라는 말이 낯선 말이 아닐 정도로, 서울은 외부지역과의 근접성이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 교통의 발달은 서울 시민들의 거리, 공간의식을 더욱 변화시켰다. 도로가 정비되고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40~50킬로미터의 거리, 공간은 통근권, 통학권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서울에서 400~500킬로

시로 각인되는 서울의 재현이 확대 생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3) 인구집중현상과 함께 인구 이동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960년대 3대 7의 도시와 농촌 인구의 비율이 1990년 경 7대 3으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한울, 2000, 155면)

미터 떨어진 부산이나 목포까지도 하루에 다녀올 수 되었다.¹⁴⁾

<서울의 달>의 홍식, 춘섭이 특별한 준비 없이 충청도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된 것도, 서울이 그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에 대한 동경심이 쉽게 실현될 기대감으로 바뀐 만큼 서울은 접근하기 쉬워졌던 것이다. 홍식은 춘섭보다 먼저 서울에 올라왔지만 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동거녀에게 전세금을 사기 당한 후 노숙자 신세가 된다. 춘섭도 서울에 대한 정보 하나 없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다. 춘섭이 준비한 것은 소 한 마리를 팔아 마련한 서울 정착금 정도인데, 이마저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홍식에게 전부 사기당하고 만다. 두 사람의 무모한 서울 도전이 너무나 쉽게 결정되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공유했던 서울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은 화려한 도시 이미지로 소비되었다. 1994년 서울 도심은 전자식 전광판이 등장하여 밤낮으로 다양한 상품을 끊임없이 광고하는 화려한 도시로 거듭났다.¹⁵⁾ 이는 다시 신문, TV를 통해 더 강렬하게 전달되고 홍보되었다.¹⁶⁾ 이 시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변화가, 백화점, 편의점 등 소비 공간이 일상적 생활공간처럼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⁷⁾ <서울의 달>의 홍식, 춘섭에게도 서울은 너무나 쉬운, 가까운 일상적 장소였던

14) 정재정, 『대중교통의 발달과 시민생활의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566면.

15)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지 600년이 되는 해였던 1994년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자식 전광판이 등장했다. 94년 한 미술 전문지에서 미술 평론가들을 상대로 서울 정도 600년 기념 기획의 하나로 조사한 ‘서울의 꼴불견 시각 이미지’ 조사에선 ‘남대문과 서울역 사이에 제멋대로 부착된 대형광고판들이 상품사회의 힘으로 개인을 주눅 들게 만든다’는 의견이 나왔다.”(강만길, 『한국현대사산책 2』, 인물과 사상사, 2006, 111면)

16) 1990년대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디자인과 광고와 같이 소비를 촉진하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의 촉진과 판촉 활동의 증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특히 일상적 움직임의 가속화 현상을 추동한다.(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학과학사, 2000, 28면)

17) 송치혁, 『1990년대 초반 트렌드 드라마 연구』, 『민족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2015.9.19.

것이다. 홍식은 가난하고 배경 없이 성장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경제력을 획득할 도시로, 춘섭은 취직하고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게 해줄 도시로, 서울을 수용한다. 이들에게 서울은 광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비추는 화려하고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 꿈의 도시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달> 홍식, 춘섭이 직접 경험하는 서울은 TV를 통해 꿈꿨던 희망적 정서를 공유하기 쉽지 않은 장소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직업, 학력, 경제력, 집 등이 일정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대졸 출신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월급과 아파트, 자가용 소유 등이 당시 서울 중류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면, 홍식, 춘섭은 제대로 갖춘 것이 없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춘섭의 서울 정착금을 가로챈 마련한 홍식의 자가용이다. 홍식은 춘섭의 돈으로 제일 먼저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리운전을 시작한다. 한국은 1994년 8월 24일 자동차가 700만 대를 돌파하고, 자가용이 93.8%를 넘어서며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¹⁸⁾ 당시 승용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적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었으며, 가장 드러내기 쉬운 소유물이었던 것이다. 제대로 된 방한 칸도 없는 홍식도 ‘마이카’를 소유하고 있었고 홍식을 사랑하게 된 영숙의 경우도 ‘마이카’를 소유한 사무직 남성과 ‘카풀(car pool)’을 하며, 그와의 연애를 꿈꾼다.¹⁹⁾ 아무 것도 없는 홍식에게 ‘마이카’는 화려한 도시, 서울에 편입할 수 없는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

18)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는 1979년 98,561대, 1990년 823,731대로 증가했다. 1979년은 서울의 자동차 수가 20만대를 넘어선 해였고, 1990년은 1백만 대를 돌파한 해였다. 서울의 자동차는 하루 평균 7백여 대가 늘어나 인구 10명(2.8가구)당 1대 꼴이 된 셈이다. 서울의 차량 증가율은 1987년부터 2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27.26%로 가속화하는 현상을 보였다.(정재정, 앞의 논문, 560면)

19) 권두현, 『한일 텔레비전 드라마와 아키텍처』, 『한국극예술연구』 제46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320면.

홍식은 자가용을 소유하며 서울 안으로 편입되기를 욕망하지만 그에 게 서울은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다. <서울의 달>의 인물들은 화려한 거리를 거닐 뿐, 그 곳의 어떤 장소도 공유할 수 없다. 드라마의 인물들은 강남, 압구정동, 신촌 일대의 고급스러운 상점들에 출입하는 일이 없다. 홍식만이 유일하게 한강 유람선 레스토랑²⁰⁾, 외국음식점²¹⁾, 호텔, 골프연습장을 드나들지만, 그것도 사기 결혼을 위해 경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결혼을 성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홍식에게 서울의 화려한 소비 공간은 빛을 내어 투자하는, 빛이 쌓이는 공간일 뿐이다. 경란과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홍식은 소비문화를 즐길 수 있었지만, 소비 주체는 될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경란에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려한 도시 생활을 잠시 누린 홍식조차 한 번도 진정한 소비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서울은 일상생활을 미화하고 심미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상업적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장소들이 생겨났다. 사회적 지위와 소득, 그리고 세대간, 남녀 차이 또는 선호에 따라 공간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1990년대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

20) 당시 한강은 서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며 자주 활용되곤 했다. 한강 유람선이나 레스토랑 등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낭만적으로 그려지곤 했다. <서울의 달>에서도 드라마 초반부 영숙의 출근길에 쫓아간 춘섭이 버스 창문 너머의 한강, 한강 유람선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대중가요에서도 1980년대부터 ‘한강’과 관련된 노래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나훈아 <한강>(1983), 조용필의 <한강>(1983), 김수희 <한강의 연인들>(1986), 김범룡 <한강>(1987), 김대진 <한강의 노래>(1987) 등, 이 시기부터 ‘한강’ 관련 대중가요는 ‘한강’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서울을 예찬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장유정, 『1970~80년대 서울 관련 대중가요의 두 모습』, 『한국문화와 예술』 제10집, 2012, 138면)

21) 홍식은 경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 프랑스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한다. 1990년대는 소위 정통 일본 음식점, 중국 음식점, 이태리 음식점이나 프랑스 음식점 등이 고급 외식 문화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서 수입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성장과 함께 외국음식의 소비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함한희·송도영·윤택림·윤형숙, 『서울 주민의 식생활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420면)

을 차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했다.²²⁾

<서울의 달>에서는 춘섭, 홍식이 각각 정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좌절을 겪을 때마다 화려한 서울 중심지를 정처 없이 걷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그들이 거주하는 달동네의 언덕 공터에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장면과 유사한 의미망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어느 것도 공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입장인 그들에게 서울의 거리, 화려한 야경은 물리적으로 근접해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계층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달>에서 달동네와 산 아래 도시와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 경계를 넘기란 어렵다. 이 마을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룬살롱, 모텔 등 도시의 음습한 뒷골목과 같은 곳들이다.²³⁾ 당시 서울은 거리를 점유하는 방식이 계층에 따라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간극은 좁히기 쉽지 않았다. 각테일이나 양주를 마시는 호텔 바나 고급 술집이 있는 반면 우동 한 그릇에 소주를 기울이는 포장마차가 있었고, 두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 간 간극은 컸던 것이다.²⁴⁾ <서울의 달>의 ‘달동네’ 사람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문제를 나누고, 그것도 안 되면 작은 구멍가게에서 즉석라면이나 과자 한 봉지에 소주를 마시는 것이 전부이다.

시골에서 상경한 홍식, 춘섭이 아니더라도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울은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다. 달동네는 마을버스를 타야지만 서울 중심가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고 높은 언덕, 작은 골목 사이사이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다. <서울의 달>의 배경무대인 주택도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낡은 한옥집이다. 주인 장영감 부부가 월세를

22) 강내희, 앞의 책, 82면.

23) 고선희, 앞의 논문, 27면.

24) 서울 밤거리만 하더라도 1990년대 초 상류층 출신은 압구정동의 로테오 거리에서, 중하층은 신촌지역 일대에서 유흥문화를 즐겼다. 반면에 빈민층은 영등포시장이 주변에서 저녁에 맥주나 소주를 마시는 정도였다.

놓고 살아가는 이 집에는 박선생, 상국이 가족, 홍식과 춘섭, 주인 집 딸 옥희 모녀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춤선생,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제비, 골목 카페 주인 등 중류층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민층에 속한다. <서울의 달>이 그려내고 있는 “옥수동은 상징적 정체구간으로서 개발의 속도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거처이다. 이들의 주거 공간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접촉해 있다.”²⁵⁾ <서울의 달>의 주요 무대인 장영감 집 사람들은 작은 마당을 둘러싼 작은 방, 공동 수돗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개인적 공간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간다. 이곳은 개인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방마저 2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²⁶⁾ 빌딩 숲이 늘어서 있는 서울 뒤편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어 나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이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공동체적 의미를 발견하는 서사였다면 <서울의 달>은 이러한 서사적 흐름과는 차이를 가진다.²⁷⁾ <서울의 달>의 장영감 집 사람들의 목표는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서울 번두리 고지대 공동 주택에서 서울의 중심부의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는 점에서만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숙 너 솔직히 얘기해봐, 딴 생각하다 정류장 지나쳐서 내린 거 아니지? 맨날 거기서 내렸지. 너 언넌 다 알아. 사실 나도 학교 다닐

25) 권두현, 앞의 논문, 319면.

26) 제비 박선생만 유일하게 혼자 방을 쓰고 있지만, 이 방은 호달이나 보람엄마가 극 초반부터 수없이 드나들고, 후반부에는 아픈 보람엄마를 대신해서 보람이와 함께 살기 때문에 개인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27) 고선희의 논문에 따르면, “1980년 <달동네>와 1994 <서울의 달>은 서울 번두리 고지대의 빈민촌을 주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 공간이 유사하다. 그러나 <달동네>에서는 떠난 고향과도 같은 훈훈한 인심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당연시하는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는 데 반해, <서울의 달>에서는 공동체적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앞의 논문, 20면)

때 매일 거기서 내렸어. 산동네 앞에서 내리면 거기 산다는 게 쟁피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항상 니가 내린 그 자리에서 내려서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어. 나 쪽집계지?

명숙 치어~ 언니가 경험자니까 아닌거지 뭐.

영숙 너는 어느 길로 다니니?

명숙 언넌 어느 길로 다녔어?

영숙 저쪽 이층 양옥집 많은데 있지, 거길로

명숙 나도

영숙 어쩜 나하고 똑같니

명숙 언니 그래서 사람은 똑같다고 하나봐

...중략...

명숙 난 수업료 못내고 배고프고 그런적은 한번도 없었어. 그래도 지금 사는 그 집은 싫어.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싶어.(16회)

영숙, 명숙이 달동네에 산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이유는 거주하는 장소가 가진 차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 번두리 높은 지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기에, 거주지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일한 입장으로 표출된다. <서울의 달>의 인물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서울 평지대의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는 상국 엄마와 상국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기에 피소드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꿈인 상국엄마는 상국이를 데리고 종종 집 근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놀이를 하곤 하는데, 한번은 아파트 경비원에서 붙잡히는 사건을 겪게 된다. 입주자가 아닌, 상국이 모자를 수상하게 여긴 경비원에게 도둑으로 오해받고 호되게 꾸중을 들은 상국엄마는 서럽게 울며 반드시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을 결심한다. 상국엄마의 서러움 뒤에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차별하는 사회적 분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아파트는 사회계층을 주거 유형으로 구분 짓는 데 기준점이 되었던 거주형태였다. 결국 <서울의 달>의 장영감 집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달동네를 떠나는 데 성공하는 집은 상국이네이다. 10년 만에 15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국엄마가 이사 날이 정해지자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단지 더 나은 거주공간으로의 이동 이상의 계층적 이동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⁸⁾

<서울의 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 형태에 따른 계층의 차이는 1990년대 초반에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²⁹⁾ 서울은 소비패턴에 의해 공유 가능한 장소가 구분되고 계층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자유로운 소비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3. 욕망의 도시, 좌절의 도시

28) **옥희** 상국엄마 이건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아파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웬지 모르게 상국엄마 목에 힘이 짝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 보는 눈도 자꾸 내려깔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

명숙 원래요. 아파트 밑에 사람 사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내려 깔고 보게 되있는거예요.

상국엄마 아냐. 애, 애가 왜이래. 우리 아파트는 딱 가운데 층이야.

옥희 좌우간 변했다면 변한 줄 알아. (76회)

29) 1990년대 들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화 과정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면서 새로운 도시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도시 내부에는 강남 지역으로 대표되는 신흥 부유층 지역과 서울역, 영등포 인근의 쪽방이나 서울 외곽의 비닐하우스로 상징되는 빈곤층 지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거 모던 도시가 계층 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집단의 동질성의 정도가 컸다면, 새로운 도시화는 분절화 된 생활양식으로 분화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커진다. 또한 소비패턴에 의하여 집단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회계층 분화와 주거 유형의 변화로 이어진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동질집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게 되어 아파트라는 주택소유를 통하여 사회적 계층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경자·홍인옥·최병두, 앞의 논문, 446~457면 참조)

장소에는 끔찍한 고역, 즉 장소에 꿈쩍없이 묶여 있다는 느낌, 이미 만 들어져 있는 환경과 상징 그리고 틀에 박힌 일상에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일상생활의 기반으로서의 장소는 “일상생활의 꿈쩍함”이라고 부른 특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일상 속에는 지루한 일들, 굴욕, 또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들, 고난, 보잘것없음, 탐욕이 점철되어 있다. 개인과 장소 간에는 융합뿐만 아니라 긴장도 존재한다.³⁰⁾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에는 그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드러나고, 긴장감이 형성된다. <서울의 달>의 인물들이 서울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욕망은 그들을 늘 긴장상태를 놓이게 한다.



<그림 1>



<그림 2>

높은 고지대 빈민층 동네에 살고 있는 <서울의 달> 인물들은 밤이 되면 달동네 언덕 아래로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그 안에 편입되어 살아갈 날만을 꿈꾼다. 동네 높은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거의 매 회 사용될 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인물들의 욕망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드라마의 주요 인물인 홍식, 춘섭, 영숙의 욕망은 빈민층의 삶에서 중

30)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2면.

류층 이상의 삶으로 이동에 있다. 이들 중 목표를 향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속물적 태도를 드러내놓는 인물은 홍식이다. 홍식은 서울 정착 초기에 동거녀에 배신당하며 쉽지 않은 출발을 했고, 그 배신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여 고향친구 춘섭의 돈을 빼앗는다. 홍식에게 서울이란 도시는 당한 만큼 돌려주고, 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하는 그런 곳이다. 그가 인지한 서울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방법은 경제력을 갖추고 계층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홍식은 춘섭을 따라 우연히 머물게 된 ‘달동네’에서 만난 제비 박선생의 연결로 ‘제비족’의 대열이 합류하게 된다. 박선생이 한물 간 제비로 동네 카바레를 드나들며 푼돈을 벌고 무허가 춤 방에서 춤을 가르치며 겨우 생존해가는 데 비해, 홍식은 생계 유지형 제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홍식의 목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홍식은 사기 결혼을 통해 강남 부유층으로 상승하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홍식은 스스로가 속물임을 확인하고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³¹⁾

그에 비해 홍식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상경한 춘섭은 순박하고 성실한 시골 청년으로 비취진다. 하지만 그에게도 서울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홍식 못지않게 강하다. 춘섭의 욕망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그가 서울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홍식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아 보이며, 소박하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춘섭이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자의 선택이나 조건을 들여다보면 그의 욕망도 홍식 못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섭은 우연히 옆집 영숙을 만나 첫 눈에 반하여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영숙을 쫓아간다. 이후 춘섭은 영숙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를 향한 무시,

31) 권두현, 앞의 논문, 316면.

경멸의 시선이다. 춘섭이 영숙을 결혼 상대로 선택한 이유 중 중요한 사실은 영숙이 서울여자이기 때문이다. 춘섭에게 영숙은 단순히 첫 눈에 반한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영숙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춘섭의 환상을 실현 시켜 줄 욕망의 대상이다. 춘섭에게 서울, 서울여자, 영숙, 그리고 순결은 등가를 이룬다. 춘섭의 결혼에 대한 소망은 그가 가진 서울에 대한, 서울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의 꿈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는 결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그가 시골 출신 호순이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춘섭을 좋아하는 호순을 쌀쌀맞고 냉정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호순이 시골 출신이며 서울 상경 직후 잠시 술집에 머물렀다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춘섭이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서울여자 영숙에게 투영되어 과도한 애정과 집착으로 드러난다.³²⁾

지방출신임이 분명한 홍식, 춘섭과 달리 서울에서 살아왔지만, 고졸이라는 학력에 가난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숙의 욕망도 두 사람과 다르지 않다. ‘달동네’를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이다. 영숙은 학력, 직업, 재력 등이 안정적인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카풀(car pool)로 만난 승규는 병원을 경영하는 집안에, 대졸 출신 회사원, 자가용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영숙이 욕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적합한 대상이다. 영숙은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 승규와의 결혼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재차 확인받으면서도 승규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홍식, 춘섭의 거짓 협박 사건에 그녀가 분

32) 평소에는 착하고 순박해 보이는 그가 영숙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춘섭은 드라마 초반부 영숙이가 카풀로 만나게 된 승규를 영숙에게서 멀리하기 위해 홍식의 협박 작전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그는 동네사람들과 동물원 구경 약속을 하지만, 영숙의 참석 취소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 춘섭의 차가 없다는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도 냉정하게 거절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하며 두 사람을 경멸할뿐더러 스스로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영숙에게 승규와 같은 기회를 잡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달>의 주요 인물 홍식, 춘섭, 영숙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만족스러운 삶의 조건을 누린다는 것은 당시 서울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는 결코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욕망인 것이다. 다양한 광고들이 빛을 내며 반짝이는 전광판, 상품 판촉을 위한 축제 같은 거리, 스펙터클이 펼쳐지는 화려한 도시 서울을 온전히 누리는 계층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그 뒤편에는 물리적 생존에 급급한 <서울의 달>의 사람들, 즉 빈민층이 존재했다.³³⁾ 그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끊임없는 좌절을 겪으며 ‘낙오자들’, ‘빈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

<서울의 달>의 세 인물은 ‘낙오자’, ‘빈민’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발버둥치지만 서울은 그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좌절시킨다. 서울에서 결혼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했던 춘섭의 꿈은 영숙의 경멸로 좌절을 경험한다. 이후 춘섭은 결혼정보회사, 소개팅을 통해 여자를 만나 거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서울에서는 쉽지 않은 일임을 직시하게 된다. 그는 점차 서울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위축되기 시작한다. “서울 여자는 쳐다봐도 죄가 되나?”(7회) 춘섭에게 서울여자는 쳐다만 봐도 자신을 불쾌한 시선으로 경계하는 멀기만 한 대상이다. 이제 그는 서울을, 서울여자를 함부로 욕망해서는 안 된다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분노를 느낀다. 춘섭의 분노는 “서울에 복수하고 싶다”(18회)라는 욕망으로 바뀌어 홍식을 닮으려는 데까지 이르

33)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였다. 따라서 소비생활의 편차가 심하였다. 고도성장 개시된 이래에도 무작정 상경한 많은 농민들로 서울 빈민층이 확대되었고, 이들은 여전히 물리적 생존에 급급했다. 빈민층이 저임금노동력에 의존하는 영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토양이 되었다.(이현창, 『서울 경제의 변화』,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567면)

지만, 그는 서울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한다.

춘섭이가 서울에서의 방향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다. 춘섭의 입을 통해 종종 등장하는 ‘우리 것’, ‘신토불이’에 대한 애정은 당시 소비생산 구조의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준다.³⁴⁾ 하지만 결국 춘섭의 ‘우리 농산물 직판장’은 부도가 나고,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춘섭의 의지는 좌절된다. 춘섭의 좌절은 세계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배경으로 하여, 1990년대 세계화로 인해 소비시장에서 밀려나는 ‘우리 것’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울은 세계화 바람으로 변화한 모든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을 통해 빈곤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꿈이 좌절된 후 영숙은 이를 수 없는 욕망을 꿈꾸는 대신, 진정한 사랑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다. 영숙은 자신이 경멸했던 제비 홍식을 끝까지 사랑하며 신분 상승이라는 불가능한 욕망보다 자신의 위치를 대면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서울의 달>의 주요인물 중 홍식을 제외한 두 인물 춘섭, 영숙은 서울에 나름 정착하여 살아간다. 춘섭, 영숙이 서울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꿈꿨던 서울에 대한 환상을 버렸기 때문이다. 춘섭은 서울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접고 시골 출신 호순과 결혼하여 골목 식당을 운영하며 서울에 정착한다. 영숙은 10년 동안 경리 직원으로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트럭에서 야채, 과일을 파는 장사를 시작하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로 살아간다. 결국 그들은 계층 상승이라는 욕망보다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승

34) 1980년대 이후 해외여행의 자율화에 따른 외국문화의 직접적인 경험의 증가, 해외교류의 확대,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 유치 등은 우리 문화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민족 정체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순수한 우리 것 찾기 운동은 음식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신토불이’ 등의 구호 아래 향토 음식의 참맛, 원조 찾기가 시작된 것이다. (함한희 외 3명, 앞의 논문, 421면)

규와의 카풀(car pool) 만남을 통해 자가용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려던 영숙은 생계유지를 위해 스스로 트럭을 몰고, 서울 여자 영숙의 출퇴근길 에스코트를 위해 어색하게 자가용을 운전하던 춘섭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

춘섭, 영숙과 달리 홍식이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끝까지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애초에 목표했던 서울에서 이루고자 했던 욕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숙과 도망가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성공’을 꿈꾸며 신분 상승하겠다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는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던 빈민촌 높은 언덕에서 하늘에 떠 있는 ‘서울의 달’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한다. 1994년 <서울의 달>의 서울은 ‘빈민’으로 규정된 이들에게 화려한 도시 중심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내주지 않는다. 도시 중심에 소속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면 비극에 이르는 것이다. <서울의 달>은 드라마에서 세 인물의 서울 적응기를 보여줄 때마다 배경음악이었던 주제곡처럼, ‘원래 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렇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1990년대 초반의 서울 뒤편 사람들의 절실한 이야기인 것이다.³⁵⁾

35) 장철웅의 <서울의 달> 주제곡도 당시 상당히 유행했었다. 주제곡은 주로 세 인물이 등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화려한 유흥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차라리 혼자 마음 편한 것을/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의 하나/연인 또는 타인뿐인 길/그 무엇도 헤아릴 수 없는 나의 슬픔은/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너/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4. 1994년 서울 재현, 그 이후

1994년 <서울의 달>은 이전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방향을 보여주며, 1994년 서울 뒤편의 모습들을 재현하였다. 겉으로는 떠들썩한 행사, 축제, 화려한 도시 1994년 서울에 대한 재현은 <서울의 달>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그려졌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빈민’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화려한 야경에 가려져 쉽게 보이지 않았던 고지대 빈민촌을 주 무대로 삼은 드라마 <서울의 달>은 등장 이전, 이후를 통틀어 독특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초반 서울을 어둡고 비극적으로 재현했던 <서울의 달>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울 재현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94년 이후 <서울의 달>와 유사한 방식의 서민드라마로 1997년 KBS <파랑새는 있다>³⁶⁾와 MBC <내가 사는 이유>³⁷⁾를 주목해 볼 수 있다. <파랑새는 있다>는 밤무대 차력사, 사기꾼, 윤락녀 등 하류 계층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며, <내가 사는 이유>는 1970년대 마포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서민의 생활을 그린 것이다. 이 드라마들은 서울에 사는 빈민층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4년 <서울의 달>을 연상시킨다. <파랑새는 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서울의 달>처럼 도시 속 빈민의 삶을 처절하게 비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빈민층의 암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서울’은 특정한 장소로 이미지화되지 않는다. 즉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전 텔레비전 드라

36) 김운경 극본, 전산 연출(KBS) 1997.4.26~1997.11.30 총64회

37) 노희경 극본, 박종 연출(MBC) 1997.5.7~1997.10.9 총44회

마에서처럼 ‘서울’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장소성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드라마에 나타난 서울 재현은 이전과는 다른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이 특정한 장소로 재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도시’는 ‘서울’을 주요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대 미니시리즈 드라마에서 도시는 주로 ‘선망과 성공’, ‘부패와 음모’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도시’ 재현에 서울을 전제하고 있다면,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은 도피와 휴식의 장소로 재현된다. 또한 해외 유명 관광지를 전체 서사와 상관없이 볼거리 위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³⁸⁾ 2000년대 이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적인 드라마가 <유나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³⁹⁾ <유나의 거리>는 2014년 <서울의 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의 달>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다세대 주택을 배경으로 소매치기, 조폭, 꽃뱅, 콜라텍 주방장, 전직 부패 경찰 등 도시 하층민을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서울의 달>의 인물 설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유나의 거리>가 서울에 사는 비 주류층, 빈민층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달>과 다른 점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동체적 의식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나의 거리>은 <서울의 달>의 동일 작가라는 점, 빈민층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1994년 서울에 대한 재현을 떠오르게 하지만, 도시 서울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빈민층의 생활을 중심으로 서울을 사실적이고도 우울하게 재현하고 있는 시기는 1994년 <서울의 달> 이후 1990년대 중, 후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서울의 달>은 1990년대 불안정한 분위기를 서울 뒤편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이전 시기 서울 재현 드라마의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서울의 달>은 이후 1990년대 몇몇 작품들이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며 그늘진 서울의 뒤편, 빈민층 이야기를 재현하는데,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서울’은 특정장소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도시’라는 이미지로 덧입어 전환된 점과 비교해서 본다면 <서울의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1994년 <서울의 달>의 서울 재현의 의미를 1990년대라는 시기와 연관시켜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달> 이후 그 흐름을 이어간 1990년대 드라마와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남은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운경 극본, 정인 연출, <서울의 달>(총81회), MBC, 1994.1.8~1994.10.16.

2. 단행본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학과학사, 2000.

강만길, 『한국현대사산책 2』, 인물과 사상사, 2006.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한울, 2000.

김형민, 『접속 1990, 우리가 열광했던 것들』, 한겨레출판, 2015.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 공간의 이미지와 상상력』, 메이데이, 2010.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김현주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장실』, 논형, 2005.

임동근 김중배,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2015.

정영희, 『한국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8) 윤석진, 「2000년대 미니시리즈 드라마에 나타난 도시 이미지 고찰」, 『인문학연구』 제 91호, 2013, 203~210면 참조.

39) 김운경 극본, 임태우 연출(JTBC, 2014.5.19~2014.11.11)

3. 논문

- 고선희, 「한국 텔레비전 초기 가족 드라마 연구」, 성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표상」, 『대중서사연구』 제25호, 2011.
- 권두현, 「한일 텔레비전 드라마와 아키텍처」, 『한국극예술연구』 제46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 문선영, 「1960년대 초 방송극에 나타난 서울 풍경의 한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1집, 2013.
- 송치혁, 「1990년대 초반 트렌디 드라마 연구」, 『민족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2015.
- 윤석진, 「2000년대 미니시리즈 드라마에 나타난 도시 이미지 고찰」, 『인문학연구』 제91호, 2013.
- 이경자 홍인옥 최병두, 「서울의 신도시화 과정과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03.
- 이현창, 「서울 경제의 변화」,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장규식, 「거대도시, '서울공화국의 명암」, 『역사비평』 제65호, 역사비평사, 2003.
- 장유정, 「1970~80년대 서울 관련 대중가요의 두 모습」, 『한국문학과 예술』 10집, 2012.
- 정재정, 「대중교통의 발달과 시민생활의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최승연,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 재현된 서울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2008.
- 함한희 송도영 윤택림 윤형숙, 「서울 주민의 식생활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Abstract

1994 <The Moon in Seoul> represented of Seoul

Moon Sunyoung

<The Moon in Seoul> is not flashy neon signs or flashing distance. The TV drama is a tale of dark areas of the city. And tells the story of the poor. In the drama, the outskirts of Seoul is the underprivileged and conflict is the central story of the poor. And cheap to experience the sense of loss was Seoul city.

Seoul is very bright, healthy image in earlier times when TV dramas. But Seoul from <The Moon in Seoul> was dark and depressing. This can be regarded as a <The Moon in Seoul> the first attempt. In the 1990s, many television dramas is story the southern area of Seoul. In the 1990s TV drama was a spectacular city to the most in Seoul. Thus <The Moon in Seoul> is on the unique position.

<The Moon in Seoul> Choosub to Seoul to Seoul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hongsik the story of two characters. They live in slums. A drama deals with the reality of the people the poor. Choosub, hongsik, main character in <The Moon in Seoul> yeongsuk is dream to achieve is to live stably in Seoul. But that people of the satisfactory conditions of life in Seoul is difficult. Seoul is very hard at that time, a desire to can not be obtained.

Seoul's realistic story and the poor down this time of reproducing after the 1994 <The Moon in Seoul>. In other words can say we're for middle and late 1990s. Unstable atmosphere they treat the 1990s <The Moon in Seoul> in 1994. Behind story, Seoul. Therefore <The Moon in Seoul> reenactment drama brought the changeover of Seoul time before. In the 1990s, some works are <The Moon in Seoul> and carry on trends like it.

Or shady recreate stories of the poor, the back of Seoul. <*The Moon in Seoul*> is to see that there's a role a turning point.

Key words : broadcast drama, TV drama, place, the city, Seoul, the poor, <*The Moon in Seoul*>

접수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기간: 2015년 11월 8일~11월 21일

게재결정: 2015년 12월 17일